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3월 17일(금)
--(음력 2월 26일)--
Пятница
17 марта 2023г.
№ 10 (1202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의 3번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주택공공사업 및 서비스 분야 근로자들의 날로 기념한다. 올해 이 직업 명절은 3월 19일이다. 우영희 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9 주택공공사업 (주거 관리)회사에서 17년간 일하고 있다. 그는 청소부팀 팀장이다. 그의 작업반에는 거리 및 주택 청소부들이 40명이 일하고 있다. 청소부들은 깨끗한 날씨에 불구하고 그들이 담당하는 주택 62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청소한다. 작년에 우영희 씨의 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취재: 이에식 기자)

사할린 주지사, <능률적인 러시아>대표자들과 만남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능률적인 러시아>전 러시아 사회단체 사할린 지부의 활동가들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공공산업의 사업과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투자기획 실행에 대한 긴요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주 정부가 밝혔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투자기획 실행을 억제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자금이 유치되면서 더욱 안정화되고 있다. 2021년에 투자액은 2400억 루블리였고, 2022년에는 2600억 루블리에 달했다. 게다가 석유가스 산업과는 별도로 교통, 건설, 농산업, 수산업에 투자 지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할린주의 경제로 생활이 더욱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경제의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여러 장애요소들을 발견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스마트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논의하며, 특히 개방된 맨홀과 수도관 또는 난방망에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자동 송신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 개발 기획,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푸틴 대통령에게 제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극동연방 광역시의 도시들의 개발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사할린 주지사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타, 유즈노사할린스크, 올라우데 광역시, 키타, 세베로바이칼스크의 마스터 플랜을 검토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의를 개최하며 지난 10년간 극동지역에서 경제, 제반시설, 사회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을 치하하며,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적 개선과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제반시설의 문제 해결을 비롯해 주도하는 사업을 더욱 촉진시키고, 주민들의 자기 실현과 취업,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에 극동의 도시들을 개발하는 대규모 기획들의 착수가 보고됐다.

"도시들의 마스터 플랜은 일종의 사업과 자원 활용을 위한 출발점의 핵심 도구이다. 우리가 협약한 바와 같이 이는 주민들과 사업이 요구하는 바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건설 정책만이 아닌 주택 건설, 공원 및 소공원 정비, 학교와 유치원 조성, 보건소와 병원

건설, 도로와 교량 건설 부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은 전반적 경제개발과 지역 및 도시의 경쟁력을 이용하는 것이 기초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는 극동지역 개발을 저지하는 일련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벽촌 지역에 건축 자재가 비싸고, 물류가 어려우며, 지진활동이 활발한 점이라고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설정된 과제 이행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즉 극동 지역을 위해 건설 및 사회적, 문화적, 교통, 동력 공공 제반시설 건설 명목으로 연방 예산 배정 시 교통의 접근성과 지진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의 계수를 적용하고, <극동의 주택> 프로그램 시행 시 종합적 지역 개발과 준비를 위한 자금조달체계 이용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대통령에게 표명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 항구 두 곳을 기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 개발 기획을 발표했다.

(3면에 계속)

단신

코르사코프 지역에서 전 러시아 지휘참모 훈련 개최

3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코르사코프 지역에서 전 러시아 지휘참모 훈련이 열렸다. 3월 15일(수)에는 오희츠크에 마을에서 구조대가 호우로 인한 실제 처리작업에 따른 활동을 전개했다고 코르사코프 시행정부가 전했다. 2차 단계는 3월16일 코르사코프 시 지역에 화재 진압을 훈련했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은 비상상황 예방 및 대처에 있어 국가 통합 시스템 장비와 준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양호하다'란 평가를 받았다."고 러시아 비상대책부 사할린 총지국 국장 대령 막심 모이세예브 대령이 강조했다. 이틀간 이어진 지휘관참모 훈련은 러시아 비상대책부의 엘렉산드르 쿠렌코브 장관의 지휘로 진행됐다.

일본, 러시아와 무비자 방문 복원 촉구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 복원에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 있다고

3월 14일(화) 일본의 도쿄 외무성 요시마사 야야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가운데 "일본 북부 4개 섬(쿠릴열도 남부)에 방문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 간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우리는 조속히 적합한 교류 재개를 지향하며, 이를 목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한 대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할린주 동력시설의 현대적 방어책 도입

사할린주의 연료 및 동력 종합시설의 안전 문제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지역 대테러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거론됐다. 지역 동력부 및 사할린 동력회사, '로스그와르디아'의 대표들이 사할린과 쿠릴 연료 및 동력 단지의 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2019년 -2023년 러시아 연방 테러 이념 대응 종합적 계획과 대테러 방지 효과 개선책의 일환으로 주 및 지방자치 실무기관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 방지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첫 개인 소포들 사할린 동원병들에게 배송

일주일 동안 사할린 주민들이 약 150개 소포를 수집했다. 소포들은 주로 다양한 식품, 제과류, 따뜻한 양말, 휴대용 랜턴, 교대로 장병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품들이다. 3월 15일(수) 재활센터에 수집된 소포들이 차량으로 공항에 전달됐다. 며칠 안에 소포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사흐초르스크 지역에 도착한다. 도착지에서 장병들의 실제 주둔부대에 배분하여 개별적으로 직접 전달한다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가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사할린한국교육원 제 10대 원장으로 **정승훈** 세종 집현중학교 교장이 원장으로 부임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신입 원장과 만나 인터뷰를 했다.

- 사할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원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전남 고흥(우주선 쏘아 올리는 곳)에서 태어났고, 한국교육원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교사 17년(군대 빼고), 교육행정 12년, 경력력까지 포함하면 경력력이 31년이 조금 넘습니다.

- 네, 경험이 많으시군요. 사할린교육원 원장으로 지원하신 이유는?

- 지원한 이유는 해외에서, 특히 동포들이 계신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외국어(러시아어)를 하나 더 익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도 하십니까?

- 중국어를 좀 배웠고 한 20여년 전 러시아어도 개인적으로 조금 배웠는데 다 잊어 먹었지요. 사할린에 왔으니 제대로 배워 볼 계획입니다.

- 원장님께서 사할린한인사는 좀 아시는지요?

- 한인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조? 오기 전에 공부를 해보니까, 거의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군요. 본격적으로 이주가 이뤄진 것은 일제 강점기였구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반해, 사할린 동포들은 스스로 사할린 한인들이라 하고 그렇게 불리길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세대가 많이 귀국하셨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 사할린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인사는 많이 나누셨어요?

- 기본적인 제 업무는 한국어 보급과 한국 문화 전파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그동안 행사나 활동이 많이 위축됐었는데,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사할린 주와 시 한인회가 주최한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고, 교육원 한글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 원장으로서 어느 사업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지요? 직접 강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저는 뉴스에 나오는 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 동포 3세, 4세,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5세들이 한국어 능력과 전문성을 쌓아서, 앞으로 활성화될 동북아 경제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할린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의는 사할린 국립대에서 하기로 벌써 합의했구요, 우리 교육원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 국립대에서는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실 겁니까?
-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교수님이 3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하는 것은 한국어 원어민 교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 역사를 비롯해 여러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원장님께서 교육원 외에 한글학교 사업도 맡고 계시는데 업무는 파악되셨나요? 지방 방문

계획은 있으신가요?
- 오늘 오후 코르사코브(인터뷰한 날 3월 10일)에 찾아갈 것이고, 지방은 차근차근 가볼 생각입니다. 사실 최근에 사할린에서 한국어 채택학교, 그리고 한글학교 선생님 수가 적어졌습니다. 은퇴한 선생님도 있고, 영주귀국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이때 바로바로 빈자리를 충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교사도 부족하고 지방 같은 경우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구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육성 프로그램을 한번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 사할린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것은 있으세요?
- 최우선적으로 러시아어를 최대한 빠르게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좀 더 다양하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장님께서 좋아하시는 표현 또는 좌우명은 있으신지요?

- 좌우명이라기 보다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낫다."

-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 첫째, 새고려신문을 열심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고려신문이 주간신문이 아니라 일간신문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교육원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인사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개인 능력 중의 하나였다면, 앞으로는 한국어를 잘 하는 것이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요. 동포 여러분들도 우리 말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원장님의 가족 사항도 궁금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셨나요?

- 아내와 현재 서울교육청 교감이어서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20대 아들 둘이 있습니다.

-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요?

- 일단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도 했구요. 그리고 일본 검도 말고 한국 해동검도를 좀 합니다. 바둑도 꽤 오래 잘 두었습니다. 제가 6단인데 목

표는 7단(아마추어 최고 단은 7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프로 선수가 알파고(인공지능회사 만들어진 프로그램 - 편집주.)에게 지는 것을 보고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할린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은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쿠릴의 여성 주민, 극동 헥타르 지역에 아동을 위한 관광 캠프 건설

쿠릴 열도 쿠나쉬르 섬의 유즈노쿠릴스크 마을에 동양 미술 애호가들이 세운 새로운 스포츠 캠프가 생겼다. 이 토지는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받은 땅이다. 유정소년 테마 캠프가 중요한 것은 쿠나쉬르 섬에는 7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2천여 명이 아동이란 점이다. 유즈노쿠릴스크 가라테 연맹 훈련 사범인 빅토리아 쿠체로와는 고라치 해변 마을 인근에 부여받은 2헥타르의 토지를 즉시 아동 캠프 건설용으로 등록했다. 이 부근에는 유명 온천이 자리하고 있다. 이 캠프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휴식은 물론 스포츠 선발전의 전지 훈련을 위한 곳이다.

우선 주요 시설로서 4채의 주택과 식당, 목욕탕이 2018년에 건설됐다. 현재 캠프장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 스포츠 학교의 학생들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 국제 가라테 경기에서 여러 번 우승과 상을 차지했다

Жительница Курил построила туристический лагерь для детей на ДВ-гектаре

В поселке Южно-Курильск на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Большой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появился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лагерь, который построили энтузиасты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Землю они получили по программе ДВ-гектара. Тема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спорта оказалась актуальной: на Кунашире живет примерно 7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них почти 2 тысячи — дети.

Тренер-преподаватель Федерации карате Южно-Курильска Виктория Кучерова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лагеря оформила сразу два гектара возле села Горячий Пляж. Поблизости от него находятся терм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Лагерь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отдыха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а такж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сборов. Первые капитальные постройки — четыре дома, столовая и баня — появились еще в 2018 году.

Сейчас лагерь успешно работает, а воспитанник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ись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призерами первенств России, ДФ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карате.

Сакхалин 주민들, 벌채 금지 목록의 나무를 촬영하고, 상금 타도록 초대

〈나무들은 살아있는 자연의 기념물〉 전국 사진 공모전이 3월 1일부터 시작됐다.

사진 응모자들은 러시아의 국가 고목 등록부에 등재된 독특한 나무들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한다고 사할린주 산림 및 수렵산업청이 전했다.

사할린 지역에도 이러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중 크라이스웨타곶으로 가는 길에 쉬코탄 섬에 있는 90년 된 주목이다. 쿠나쉬르 섬에는 또 하나의 고령의 주목이 자라고 있는데 몇 가지 정보들에 따르면 나무의 높이는 10m이며, 나이는 1천 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참고로 주목은 사할린주와 러시아 연방에서 희귀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멋진 사진을 찍고자 쿠릴로 가기 어려운 주민들에게도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으로 직접 가서 웨르흐네에 호숫가에 있는 유명하고도 살아있는 자연의 기념물로서 100살이 넘는 잣나무를 사진으로 찍어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1등 우승자에게 10만 루블리, 2등은 6만 루블리, 3등은 3만 루블리를 지급한다.

사진전에 응모하기 위해 〈나무들은 살아있는 자연의 기념물〉 프로그램 사이트(www.rosdrevo.ru)를 방문해 〈사진 공모전〉 항목을 찾아 '응모하기' 항목을 누른 다음 이 페이지로 사진작품 보내기를 하면 된다. 사진 공모는 10월 1일까지며 우수 작품들은 '러시아의 독특한 나무들' 증정용 사진집 2권에 실리게 된다.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предложил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краснокнижное дерево и выиграть денежный приз

С 1 марта стартова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отоконкурс «Деревья — памятники живой природы».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лагают запечатлеть уникальное дерево,

занесенное в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естр старовозрастных деревьев России, и прислать на суд жюр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ие деревья есть. Одно из них — девятидесятилетний тис остроколючный, который растет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по пути на мыс Край Света.

Еще один тис-долгожитель произрастает на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По некоторым данным, десятиметровому растению может быть около тысячи лет. Напомним, тис остроколючный занесен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ак редкий вид. Для тех, кому сложно добраться до Курил в погоне за красивым кадром,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в интересное дерево прямо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десь, на островке озера Верхнее, растет знаменитая сосна. Памятнику живой природы более ста лет.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бедителя ждет премия —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второе — 60 тысяч рублей, третье — 3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необходимо зайти на сайт программы «Деревья — памятники живой природы» (www.gosdrevo.ru) в раздел «Фотоконкурс».

Заявк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до 1 октября. Лучшие работы опубликуют в подарочном фотоальбоме «Уникальные деревья России» Том 2.

〈국민 낚시〉 우승자들, '나와가' 22kg 잡아

3월 11일 오후 지역에서 〈국민 낚시〉 전통 얼음낚시 축제가 열렸다. 대회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한 가족팀이 '나와가' 22kg을 잡았다고 전해졌다. 대회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낚시 참가자들이 '나와가'를 낚았다. 날씨가 나뻘에도 불구하고 낚시 애호가들은 자신들의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다. 심사단은 개인별, 가족 단체별로 잡은 나와가의 중량에 따라 우승자를 결정한 가운데 사위츠킨 가족이 21.880kg을 잡아 우승했다.

Победители «Народной рыбалки» поймали почти 22 кг наваги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к подледного лова «Народная рыбалка» прошел в Охе 11 марта. Состязания собрали более 70 человек.

네벨스크 시, 제2회 사할린주 오픈 선수권 대회 진행

지난 11일(토) 네벨스크시 스포츠학교 운동실에서 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오진하)의 주최로 제2회 사할린주 오픈 씨름 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 나와, 네벨스크, 흠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의 2008-2009년생 선수, 16세이상 선수 약 40여명이 출전하여 승부를 다투었다.

대회의 목적은 한민족 전통 씨름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할린 청소년들을 스포츠활동에 유치하는 것이다

이날 선수들을 네벨스크 시장 알렉세이 샤발린, 사할린주두마 의원 임 유리, 사할린주씨름협회 회장 춘 알렉이 등이 격려해주었다.

대회에는 주 씨름협회에서 이번 대회에 협력한 네벨스크 시청과 네벨스크 스포츠학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씨름협회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오픈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

지난 12일(일) 선수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오픈 태권도 (MFT)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국제 태권도 연맹 사할린주 태권도 협회(회장 안수학)의 주최로 진행되었는데 선수들은 흠스크시, 체호브 마을, 일린스코예 마을, 토마리 시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시톨트>, <오스트로브>, <러시아> 스포츠클럽들을 대표해 출전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5세-6세 유아 선수들과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의 시범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사할린주 올림픽위원회 왜체슬라브 글루호브 위원장,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천영곤 회장 등이 선수들을 격려해주었다.

"선수들이 좋은 기술과 실력을 보여주었고 선수중 특히 김 알쭈이 이번 대회에서 잘 출전해 지난 2월에 하바롭스크에서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청년무술대회의 우승자인 워론코브 마이클 선수를 이겨냈다"고 안수학 사범이 전했다.

대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육스포츠관리국 및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주 코스타 학생을 살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 주 콘스탄틴이 뇌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코스타는 겨우 17 세이며 올해 학교를 졸업합니다. 우리 아들은 재능이 많습니다. 여러 외국어를 알고 있으며 주지사의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독일에서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7 백만 루블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찾을 시간도 없습니다. 질병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콘스탄틴의 통장입니다.

Получатель: ЦЗЮ КОНСТАНТИН АНДРЕЕВИЧ

Номер счёта: 40817810450341338936

Банк получате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ПАО СБЕРБАНК

БИК: 040813608

Корр. счёт: 30101810600000000608

ИНН: 7707083893

КПП: 650102001

SWIFT-код: SABRRUMM

콘스탄틴의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79841316261

코스타의 부모 예브게니, 엘비라

편집부로부터: 주 코스타는 흠스크시 학교 졸업반 학생이며 그의 꿈은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도 몰두하고 작년 가을에 사할린주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었고 아주 좋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한국 KBS 한민족 방송국이 주최한 글짓기에서도 우수한 적이 있다.

코스타는 아주 밝고 똑똑하고 예의가 바른 총각이다. 본 신문에 소개한 적이 있다. 지난 주말부터 SNS 통해 코스타의 상황을 알게 된 분들이 이미 적극 모금에 나섰다. 그는 응원하는 문자를 많이 받고 있다. 그의 유명 동명인 주 콘스탄틴 권투 선수는 지난 15일 응원의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코스타는 유명 선수와 어릴 때 만난 적이 있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3월 17일 코스타의 부모는 주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사할린주보건부에서 코스타를 모스크바까지 의사가 인솔하기로 했다

3월 14일 현재 이미 2백50만 루블리 이상 모금.

2023년2월 기초식품 세트 가격 더욱 상승

2023년 2월 사할린주의 월평균 기초식품 세트의 가격은 8,193.46루블리로 2023년 1월보다 0.6%, 2022년12월보다 1.5% 상승했다.(2022년에 기초식품 세트의 가격은 7,697.44루블리로 한 달 만에 3.5% 올랐고, 2021년 12월 대비 5.0% 올랐다.)

2023년 2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기초식품 세트의 가격은 8064.52 루블리, 코르사코브에서는 8161.97 루블리, 포로나이스크에서는 7912.68 루블리, 오후에서 9115.37 루블리로 집계됐다고 주통계국이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 개발 기획,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푸틴 대통령에게 제시

(1면의 계속)

"현재 광역시 경제는 안정적인 발전으로 특징을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량과 주택 확보, 주민수 증가 수치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 환경은 주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게 되었다. 우리는 극동의 에너지의 중심지로서 광역시를 검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석유·가스산업 및 수산업 단지를 비롯해 교통, 물류, 관광은 경제산업의 핵심이다. 우리는 광역시 개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이에 투자액은 5천억 루블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써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광역시 개발의 핵심은 코르사코브 심해항구이다. 이곳에 한 해 100만 톤의 생선제품을 생산할 생산가공시설이 생길 전망이다. 그 결과 물류산업에 변화가 생겨 원재료들이 러시아 항구로 공급되고, 가공하여 국내 소비자들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다시

공급하게 된다. 사할린 정부는 이미 화물 환적 및 이송의 환승센터 개건을 위한 기획 서류를 준비했다. 공항은 허브로서 이송이 중요한 역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은 항공기와 해상 운송의 분기점이 된다. 향후 현대적 공항 단지는 1년에 5백만의 승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사할린주 예산으로 새로운 이착륙 활주로가 건설되어 2025년에 운용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변 우회도로 건설은 도시에서 화물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도심에 제반시설 공공사업을 위해 200헥타르 이상의 대지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교통 부문도 성장하는 가운데 철도역 부근에 석유·가스 산업단지, 농산업 단지, 산림가공 및 건설산업 단지를 배치하며, 추가로 운송 및 화물 환적의 환승센터와 철도역 건설로 운송량은 몇 배로 증가될 것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도심 광역시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지역 광역시에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서는데 총 면적은 건평 200만㎡ 이상이다. 특히 <극동 주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르사코브 항구 인근에 새로운 구역이 생길 전망이다. 사할린의 인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 기관 개발로 사할린 국립대를 거점으로 '사할린 테크'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의 스키 코스도 확대시키며, 사할린의 명소인 아나와 등대를 복구와 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킬 계획이다. 주지사는 지역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현대적이고, 편안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게 될 광역시 기획 초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개발에 주식회사 '가스프롬'이 참여하여 주내 일련의 시설들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중에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가장 현대적인 비즈니스 센터, 학교, 유치원, 스포츠 및 사회문화 시설이 있다. 가스프롬의 경영 대표 알렉세이 밀레

르에 따르면 제시된 마스터 플랜 실행을 통해 전혀 다른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이런 만남은 형식적이지도, 불필요한 사무적이지도 아니다. 관심사 측면에서 살아있는, 필요로 하는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시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사할린 지역으로서 전례없는 대규모 기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행정 중심도시로서 성공적인 기획 실행을 위해 큰 책임을 안고 있다. 우리 도시에는 지역을 위한 중대한 기획들이 생활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이착륙 활주로 건설, 현대적인 공항 청사, 대학 캠퍼스, 버스 배치소이다. 도시와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번영을 위해 상당히 전망적이다."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 5개 도시 개발계획을 개정하여 확정지를 예정이다.

(주 정부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Триумф команды «Торнадо»

Команда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Торнадо» по тхэквондо (ВТФ), во главе со старшим тренером сборной Цой Германом,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первенстве и чемпионате по ДВФО в г. Елизово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с 9 по 10 марта.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выше 5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Камчатск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ЕАО,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ный старт был промежуточным этапом и отбором к участию в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8-13 июня в г. Шахты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Спортсмены СК «Торнадо» Пак Тэ Дин, Грачев Назар, Эм Кира и Черкасов Глеб завоевали награды самого высшего достоинства. Серебро у Кувалдиной Елизаветы, Бабенко Мильяны, бронза - у Ким Гиль Су и Тен Хо Гюн. Все они вошли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по ДВФО.

- Именно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тренера с родителем кроется залог успеха не только отдельного спортсмена, но и всего клуба. Родители играют порой решающую роль в успехе чемпиона. Это наша общая побед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СК «Торнадо» Павел Ри.

Корейский Чехов

Некоторые литературные критики называют писателя Хён Чжингона (현진건) «корейским Чеховым». И вполне обоснованно. Хён Чжингон (1900-1943) – классик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чала XX века, мастер короткого рассказа,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которого ярко и ёмко показана жизнь обычных людей из народа, оказавшихся под властью Японии.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рассказов «Жертвенный цветок» (1920) и «Бедная жена» (1921) писатель становится известным в своей стране. Именно он даёт толчок к развитию нов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литературе начала XX века в Корее – корот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Российским читателям имя Хён Чжингона вряд ли известно, а вот в Корее его рассказы «Удачный день» (1924) входит в обяз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чтения корейскими школьниками.



сказа сосредоточен весь смысл: «удачный день» уравнивается с деньгами. А это куда опаснее и страшнее, потому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в жизни человека теряется.

Хён Чжингон предлагает оценить тяжёлую судьбу человека, живущего в съёмной комнате за один вон в месяц. Его фигура противоречива. Многие из нас готовы остаться рядом с голодной семьёй дома и не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Или, вдруг заработав небольшие деньги, будут против повысить свой доход? Писатель иронизирует над ситуацией, в которой оказался главный герой. Деньги оказываются сильнее минут возле больной жены. Но не стоит забывать и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контексте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 бессилием и злостью Чхомчжи скрывается отчаяние обычных людей из народа.

Нельзя не упомянуть и о реалиях рассказа, с которыми знакомит Хён Чжингон. Писатель затрагивает и обра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ачала XX века, и особенности его поведения, и культуру общени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рассказе уделено национальной еде. Пиндетток, чхуотхан, макколи, тток, соллонтхан – такие слова из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в рассказе писателя.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роизведение «Удачный день» можно найти в сборнике рассказов с одноименным названием, вышедшем в 2019 году. Для читателей, которые интересуютс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ли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это издание – полезная книга, так как в неё включены рассказы писателя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их языках. Имя писателя входит и в рекомендательный указатель «"Постигая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Южная Корея: искусство, культура, литература», изданный в 2019 году в рамках Года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Александра Смолина, доцент СаХГУ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казывает услуги по переводу документов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и т.д.)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ПМЖ. Обращаться в редакцию (Чехова, 37) с 10.00 до 14.00, пятница с 10.00 до 12.00.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коллеги!

В наш дом пришла беда. У нашего сына Цзю Константина обнаружили опухоль в голове. Костику всего 17 лет, в этом году он заканчивает школу. Мальчик очень одаренный – знает несколько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является получателем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стипендии.

Чтобы спасти нашего сына, необходима операция в Германии. Стоимость операции – 7 млн. рублей. У нас таких денег нет. Времени на их поиски тоже нет. Болезнь очень быстро прогрессирует.

Просьба ко всем неравнодушным людям «Помогите спасти нашего ребёнка».

Получатель: ЦЗЮ КОНСТАНТИН АНДРЕЕВИЧ

Номер счёта: 40817810450341338936

Банк получате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ПАО СБЕРБАНК

БИК: 040813608

Корр. счёт: 30101810600000000608

ИНН: 7707083893

КПП: 650102001

SWIFT-код: SABRRUMM

Родители Кости Цзю - Евгений и Эльвира

От редакции: Цзю Константин очень светлый и позитивный юноша из Холмска, который связывает свое будущее с медициной. Причем образование он хочет получить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остя увлеченно занимаетс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 конкурсе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также дважды становился лауреатом конкурса сочинений, проводимых южнокорейским радио KBS. Мы не раз писали о нем в газете. Мы присоединяемся к просьбе родителей Кости и просим помочь этому талантливому мальчику.

Отслед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ходе операции по сбору средств Константину можно в телеграмм-канале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Областное первенство по ссирым состоялось в Невельске

11 марта в МБУ ДО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остоялось II-ое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и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СК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около 4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Анивы,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Ребят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очетные гост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мэр Невельска Алексей Шабалин,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Юрий Им,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сирым Алексей Чун и др. Они пожелали спортсменам удачи и успехов в этом интересном виде спор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или, что цель состязаний - популяр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и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к занятиям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юноши (2008-2009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ужчины (старше 16 лет).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поделен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реди юношей в лич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тали: Швец Александр (до 50 кг), Гусев Максим (до 55 кг), Кузнецов Максим (до 60 кг), Дзех Ярослав (до 65 кг), Гоков Михаил (до 70 кг). Среди мужчин золото у Ярочкина Руслана (до 90 кг) и Куксауза Александра (свыше 90 кг).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Первенство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прошл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2 март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и чемпиона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выше 120 спортсменов. Юные воспитанники из Чехова, Холмска, Ильинского, Томари и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Шторм», «Остров», «Росс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тлич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Состязания прошли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средней школы №11 при поддержке отдел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В числе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О Тин Х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жун Сын Хун, председатель Олимпийского сов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Глухов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 Хотелся выделить Ким Артема, который в этом турнире в финале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над Воронковым Майклом, лиде-

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нира Юношески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рошедшего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в г. Хабаровске. На этом первенстве также проявили своё мастерство Ковалёв Всеволод, Ли Денис, Лабунский Богдан, Умурзаков Абу, которые к тому же являются победителям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Юношеских иг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 поделился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Ан Сухаги.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16-17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посетит Японию

16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тправился с двухдневным визитом в Токио, где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о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ов. Как сообщи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им Сон Хан, данный визит станет важной вехой в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Прежде всего, возобновятся взаимные посещения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которых не было последние 12 лет. Визит начался со встреч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Далее состоялся саммит и официальный ужин.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ждали вопросы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касающиес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второй день визита Юн Сок Ёль встретит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вязанных с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Круглом столе по вопроса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еред возвращением на родину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стретится с японскими студента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ью, обучающейся в Японии.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отменяется с 20 марта

С 20 марта в РК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й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действовавший с октября 2020 год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15 марта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Хан Чхан Соп сообщил о том, что в стране сохраняется стабильна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30 янва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был отменён обязательный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помещениях, среднесу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инфекции сократилось на 38%, а тяжелобольных - на 55%. Между т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комендует пассажира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ходиться в масках в часы пик.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анная рекомендация касается тех, кто входит в группы повышенного риска, и у кого есть симптомы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Масочный режим сохранится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аптека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аптечных киосков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и на вокзал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ит участие компаний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к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РК будут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участие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ках, выделив на эту цель 52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4 мар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отметив, что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ок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до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уровня. В этой связи растут запросы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на участие в них.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ддержит 6.835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497 выставках. Основная поддержка коснется компаний, занятых в сегмент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био- и 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торой сезон сериала «Триумф» -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чарте Netflix

Второй сезон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ериала «Триумф» поднялся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глобальном чарте популярности телесериалов, доступных на стриминговой платформе Netflix. Это произошло на четвертый день после выпуска. Сериал возглавил чарты в 38 странах, среди которых Япония, Тайвань, Гонконг, Мексика, Турция и Бразилия. В 21 стране, в том числе, во Франции, Швейцарии, Венгрии и Канаде, сериал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Ещё в 13 странах, среди которых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Германия, Италия и Австралия, сериал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Триумф» состоит из шестнадцати серий, восемь из которых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30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сериала Мун Дон Ын - жертва школьного насилия, решившая отомстить своим обидчикам. Первый сезон знакомит со школьными годами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её подготовкой к будущей мести. Девушка вынуждена оставить учёбу в школе из-за издевательства со стороны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Проходят долгие годы. Мун Дон Ын устраивается на работу в школу, где обучается дочь одной из её обидчиц. Теперь это уже не та беззащитная девушка, неспособная постоять за себя. Мун Дон Ын готови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коварный план мести, о чём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во втором сезоне.

Группа BTS получила четыре награды Japan Golden Disc Awards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получила четыре награды на церемонии Japan Golden Disc Awards-2023.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10 марта продюсе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Big Hit Music.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стала первым музыкаль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пять лет подряд победившим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азиатский артист». Остальные награды - «Три лучших альбома», «Песня года по количеству скачиваний» и «Музыкальное видео года».

(RKI)

Южная Корея взяла курс на создание аналога НАТО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ойдя на уступки Японии в одном из старых принципиальных споров, зажгло зеленый свет созданию в регионе полноценного военного альянса с участием Вашингтона и Токио. США, которые давно пытались убедить союзников помириться и наладить отношения, немедленн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о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Юн Сок Ёля разорвать этот гордиев узел и согласили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е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изит в США,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на 26 апрел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решения по ча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юза будут закреплены в ходе поездки Юна в США, а также визита в Японию,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уже в середине марта. Данное решение Сеула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ть баланс сил в регионе, приведя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аналога НАТО, направленного против Китая, Росс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прочем,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далеко не все рады уступкам японцам,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общества и влиятель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назвали подход Юна «предательством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обещая до конца бороться против «униз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 Токио.

6 марта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ак Чин сделал офи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сообщил о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который давно отравлял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е позволяя в полной мере сотруднич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провоцируя конфликты и взаимную антипатию среди народов двух стран. Речь идет о требовани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в годы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ли для работы на япо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а потом эти рабочие стали требовать компенсации от Токио за ущерб. В 2018 году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встал на сторон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знав обоснованность их требований к японским компаниям и обязав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Э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сильное негодование как самих компаний, так и властей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что вопросы по всем репарациям были урегулированы еще в 1965 году, когд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отношений,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и вопроса о компенсациях. Кроме того, Токио даже ввел де-факто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еула, отменив упрощенный режим поставок некотор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ции и технологий. Ответом стал взрыв в Корее антияпон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Данные споры и взаимные упреки продолжались более четырех лет, пока в конце концов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 власти в РК не пришло консерватив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которое было настроено «забыть прошлые обиды ради перспектив будущего».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Пак Чина,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лучат компенсации, но не от японских компаний, а от созданного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Фонда помощи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При этом средства для выплат, как ожидается, «добровольно» внесут 16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в свое время получили серьезные госвливания из сумм японских репараций 1965 года. Одна из таких компаний - сталелитейный гигант POSCO, которы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мог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дняться за счет такой поддержки.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японцы ничего не платят в качестве компенсации. Но вместо этого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Японии и РК создадут «Фонд молодежи будущего», куда уж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понские фирмы перечислят существенные суммы. Эти деньги пойдут на развитие программ двустороннего обмена молодежи двух стран, стипендии для обуч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и прочие аналогич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в тот же день выступил с официальным заявлением, где назвал Южную Корею «важным соседом и партнером»,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зделяет позицию предыдущих кабинетов по части вопроса оценки периода колониальн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Японией. Это высказывание Кисиды тоже стало часть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сделки Сеула и Токио, где опять же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компромисса. Корея постоянно требует «полноценных извинений» от Японии за злодеяния период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 японцы говорят, что уже извинились. Слова премьера стали отсылкой к заявлению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в 1998 году, когда он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оккупацией и за боль и страдания,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корейцы.

В целом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японцы сохранили свои позиции: они не выплатили компенсации рабочим и не прозвучало новых извинени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вопрос о компенсациях так или иначе урегулирован,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косвенно, но согласилось, что оккупация была не-

гативной страницей истории. Хотя в целом все выглядело так, что в моральном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смысле уступили все же больше корейцы.

Глава МИД РК, а затем и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признали, что это не идеальное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но оптимальный реалистичный подход, который,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позволяет устранить все препятствия для полноценного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Южная Корея из-за этого и ряда других спорных вопросов регулярно отказывалась в полной мере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Японией, требуя извинений и компенсаций. Это в особенности сказывалось на возможностя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и обороны. РК и Япония хотя поддерживают союз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США, имеют у себ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базы,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следуют в фарватере Вашингтона, имеют факто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ы», но избегали становиться «друзьям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предпочитая действовать и общаться только через США.

В Вашингтоне, где уже давно уговаривали корейцев и японцев помириться, восприняли заявления союзников о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с ликованием.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это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ыстраива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будущего. Кроме того, в Белом доме заявили, что 26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осетит США с визитом, которому будет придан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 почестями подобного уровн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лидеры, несмотря на регулярные поездки в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12 лет - с момента гос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Мен Бака в 2011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в Вашингтоне заявили, что в ходе визита, где будет также отмечаться 70-летний юбилей военного союза США и РК, будут приняты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ыведут отношения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ороны, экономик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менов и прочем.

Также япон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свои источники сообщили, что Япония и РК посл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напряж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возобновляют практику регулярных «шаттловых саммитов», а Юн Сок Ёль приедет в Японию уже 16-17 марта с визитом. Ожидается также, что Юн Сок Ёль станет специальным гостем Фумио Кисиды на саммите G7,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Хиросиме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также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начало новой эпохи в отношениях».

Ликование США после заявления главы МИД РК от 6 марта можно понять. США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безуспешно бились над тем, чтобы заставить своих важнейших союзников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Японию и Южную Корею -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сфере обороны и выстроить полноценный трехсторонний военный союз, который бы стал своего рода аналогом НАТО в регионе. Сеул постоянно отказывался от этого, требуя извинений и компенсаций от японцев, корейцы также отказывались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маневры с Японией. Теперь ж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осле достигнутого компромисса все эти проблемы снимаю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лагодаря действия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ая считает, чт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КНДР, полноцен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Японией и следование пожеланиям США гораздо важнее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х претензий,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отголосками прошлого. В общем, Юн решил, что вполне можно и уступить Японии в формулировках и некоторых деталях, что Токио и Вашингтон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Как с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оздания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формате США-Южная Корея - Япония будут обсуждены как раз в ходе визитов Юн Сок Ёля в Токио и Вашингтон. В целом же было понятно, что Сеул с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Юна уже двигалс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так как военные РК ста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трехсторонних учениях, а также подчеркивал важность подоб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учетом новы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алий» и «роста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угрозы КНДР».

Все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 большой долей вероят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быстро начне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полноценный военный блок во главе с США, который некоторые сравнивают с НАТО. Это позволит Вашингтону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ть задачи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Китаю, Росс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что в США и не скрывают, комментируя основные потенциальные угрозы. Кроме того, США смогут переложить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военных расходов на союзников, а также перераспределить свои силы в регионе, опять же больше доверив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е, которые наконец-то решили помиритьс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обостряться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и гонка вооружений.

(Оконча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проект разви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овел совеща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развитию город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мастер-планы Чи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Улан-Удэ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й, Тынды и Северобайкальск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в режиме видеосвяз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ткрывая совещание, отметил,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ь лет достигнуты замет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месте с тем предстоит приложить серьез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кардинально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людей,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ую и безопасную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реши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проблемы, прид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деловым инициативам, открыт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граждан. В 2021 году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запуске большого проекта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ов.

— Ключев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своего рода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для работы, для приложения ресурсов здесь являются мастер-планы городов. Как мы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они должны базироваться на запросах жителей и бизнеса, включать не только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е решения: например, ввод в строй жилых дом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ов и скверов, создание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поликлиник и больниц, дорог и мостов. Эти задачи должны грамотно сочетаться с развитием экономики в целом,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нкурент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городов и территорий,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отметил, что есть ряд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сдерживают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ысокая стоимость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у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сложная логистика, сейсм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 В этой связи прошу Вас для ускорения реализации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поддержать следующие предложения: ввести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эффициенты учета регион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включая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сейсмике, при распределении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объектов социальной, культур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зреши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артал» механизм комплексн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и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х подготовки, — обратился к Президенту Юрий Трутнев.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л проект разви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В ее основе два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 —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город-порт Корсаков.

— Уже сегодня экономика агломераци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стабильным развитием. Прежде всего, по показателю объема инвестиций, росту населения и жилищн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для людей.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агломерацию как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центр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лючевыми отраслями экономики станут традиционные нефтегазовый 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ы, а также новые — транспорт, логистика и туризм. Мы разработали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агломерации.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нвестиции в объеме свыше 50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Будет создано около 15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лючом к развитию агломерации станет глубоководный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рт. Здесь появятся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мощности,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один миллион тонн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год.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нципиально изменится отраслевая логистика. Сырье будет доставляться на российский берег, перерабатываться и отправляться отечественным потребителям и в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уже подготовили проек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транспортного узла.

Важная роль отведена авиационному хабу.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нет точкой пересечения воздушных и морск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путей.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примет первых пассажиров современный аэровокз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пять миллионов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троится новая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она будет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2025 году.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хода вокру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зволит вывести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из города, высвободить свыше 200 гектаров земли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стет значение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доль нее располагаются площадки промышленных парков: нефтегазового,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ле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и строительного. Благодаря созда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х узлов и станций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вырастут объемы перевозок. Еще одна цель —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в пути от центра агломерации до конечной станции до 30 минут.

До 2030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гломерации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районы с современным архитектурным обликом. Общая площадь — более двух миллионов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 частност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артал» новый район появится по соседству с Корсаковским портом.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вышению квалификации островных кадров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здание на базе остро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Увеличение протяженности трасс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и Сахалина — уникального маяка Анива —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в регион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туристов.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тился к Президенту РФ с просьбой поддержать основные проекты агломерации, реализация которых обеспечит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территории и сформирует современные и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людей.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имает и ПАО «Газпром». Компания возведе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ряд объектов. Среди них —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офисные помещения, котор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школа, детский сад, спортивные и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сооружения. По мн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Алексея Миллера, реализация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мастер-плана позволит через короткий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увидеть совсем друг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Такие встречи — не про формализм и ненужную канцелярщину. Напротив, это всегда живой и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й разговор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орон. Наш губернатор презентовал мастер-пл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Масштабный,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ект.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амбициозный.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субъекта лежит повышен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успешную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го города сегодня воплощаются в жизнь знаковые для региона проекты: э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современн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туденческого кампуса, автобусного парка. Все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как на развитии города и региона, так и на благополучии наших люд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обытие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планы развития пяти городов будут доработаны и утверждены.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ут сахалинским художникам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Для творчески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задач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открою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мастерские и галереи — поиск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этого помещений уже идет. Кроме того,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выставки работ островных авторов, посетители которых могли бы приобретать понравившиеся картины. Такие экспозиции появятся в скверах, парке, гостиницах и ресторанах, на крупных коммерче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просили островные художники и дизайнеры. Встреча главы региона с твор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состоялась в стенах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много талантливых художников. Их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чтобы помочь им раскры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Важно понимать, что работа над картинами и их продвижение — трудоемкий процесс. Зачастую художники нуждаются в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поддержке, которая необходима им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поиска своего зрителя и покупателя.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намерены оказывать талантливы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Надеюсь, что это даст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искусств на островах в цело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мест размещения уличных и закрытых выставок собравшиеся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лучшими вариантами станут популярные у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пространства — общественные зоны, аэровокзал, гостиницы и заве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Это даст толчок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а также поможет сахалинским авторам найти новых зрителей.

— Я уже 30 лет продаю картины на улице. Предлагаю сделать место под выставку и продажу картин в парке, где тихо и спокойно.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установ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как на Невском проспекте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 отметил художник Сергей Васенкин.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ботами и приобрести понравившиеся картины сахалинских авторов можно будет и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на сайте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создадут специальный раздел. Чтобы разместить там свои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позвонить по телефону: 8-984-172-6551.

Круп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островных авторов скоро состоится и в офлайн формате. Она откроется 28 апреля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Часть вырученных средств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на помощь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Мариупо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полный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Центр репродуктивных технологий «Цветок жизн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лучил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бездетны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исполнить мечту — стать матерью. При этом женщинам не придется отправляться в клиники за пределами региона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цедур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зачатия.

Центр «Цветок жизни» открылся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слуги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жи-

тельницам области здесь оказывают при наличии медицинских показаний бесплатно — по полису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ие процедур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зачати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снижает риск осложнен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вызваны длительными перелетами, сменой часовых поясов.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новая высокоточная аппаратура будет готова к выполнению полного цикла мероприятий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специалисты отбирали и готовили пациентов к репродуктивному вмешательству. Путь к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зачатию чаще всего начинается в жен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этом этапе нужно выявить показания и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я к процедуре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ылечить сопутствующие заболевания.

—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е оплодотворение — тонк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настройки организма. Должны быть максимально исключ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атологии. Обследуются биоматериалы обоих партнеров, происходит очистка, подбираются наиболее жизнеспособные клетки. Для этого используется само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его перечень, доступный сахалинским врачам, существенно возрос. Областной минздрав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водит его закупки, не помешали которым даже западные санкции,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Цветок жизни» Альберт Тухтабов.

Теперь в центре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олного цикла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оборудованы: эмбриологи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малая операционная, криохранилище, система газоснабжения инкубаторов газами особой чистоты.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уникальное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орудование — инкубаторы, рабочая станция ЭКО, микроскопы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класса, оснащенные микроманипуляционной и антивибр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ой, системой для работы с мужскими и женскими половыми клетками. Имеются в достаточном количестве специальные лабораторные среды для работы с половыми клетками и эмбрионами, микроинструмент, специальный одноразовый инструментарий и медикаменты. Криохранилище оснащено сосудами Дьюара, в которых в жидком азоте будут храниться замороженные эмбрионы, мужские и женские половые клетки.

— Весь биоматериал перед помещением в криохранилище проходит маркировку, данные занося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каждому присваивается сво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номер. Оплодотворение яйцеклетки может происходить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ее морфологических свойств. У нас могут применяться все методы, — уточнила врач-эмбриолог Яна Строгая.

Выполнение полного цикла мероприятий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в центре «Цветок жизни» начнется в конце ма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 старт Году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В 2023 году,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под эгидой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встречи, мастер-классы, медиапроекты с участием учителей. Ближайшим масштаб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н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2023»,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апреле.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ы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старту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в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прибыли более 300 учителей с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за то большое дело, которое вы делаете: учите и воспитываете наших детей. Убежден, что Год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не должен ограничиться одним календарным годом. Это должен быть старт на будущее, чтобы связь между педагогом и учеником становилась только крепче, — обратился к педагога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Сегодня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трудится более деся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о воспитатели, учителя, психологи, методисты, мастер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педагог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ращаясь к собравшимся,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6 раз возросло число побед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в конкурс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ей.

— Благодаря вам, наши дорогие учителя, только в 2022 году 8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 получили наивысший 100-бал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по ЕГЭ, 6 островных ребят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Гордимся учителям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Холмска, которые попали в тысячу лучших педагогов России,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метили, что абсолютной заслугой педагогов стало лидерство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ДФ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а также попадание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по итогам «Абилимпикс-2022».

Особ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вучали в адрес уч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ВО. Это преподаватели ОБЖ и 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я математи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а также руководящие работник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 생활개선파주시연합회 향토요리연구회, 사할린동포에게 나눔 행사

이웃사랑 실천 앞장, 케이크 100개 전달

한국생활개선파주시연합회 분과 중 하나인 향토요리연구회는 지난 10일 쌀 파운드케이크 100개를 문산읍 사할린동포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나눔을 위해 파주시 생활개선회 향토요리연구회원들은 농업기술센터 조리과공실에 모였다. 이들은 재료 손질부터 반죽, 빵 모양 만들기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쌀 가공 교육에서 배웠던 솜씨를 뽐냈다. 구미우 향토요리연구회장은 "우리들의 작은 나눔이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파주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항재 도시농업과장은 "한국생활개선파주시연합회는 대표 여성농업인 단체로 지속적인 농촌 발전을 위해 힘써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늘 앞장서 왔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경인신문)**



▲ 한국 생활개선파주시연합회 향토요리연구회, 사할린동포에게 나눔 행사 [경인신문]

'2023년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서울서 개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28개국 재외한국문화원장 28명, 문화홍보관 5명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에서 '2023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29개국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장 28명과 문화홍보관 5명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재외한국문화원은 1979년 도쿄와 뉴욕 문화원 2개소로 시작해 현재 28개국 33개소에 달하며, 올해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에 새로 개원할 예정이다.

각국의 한국문화원은 주재국민의 선호와 한국에 대한 관심도,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험·전시·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에 K-컬처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해외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한국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콘텐츠의 진출 가속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K-컬처 수출역군으로서 펼친 활약상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월 14일에 열린 장관 주재 워크숍에서는 K-컬처 홍보 우수사례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주별기문화원은 'K-클래식의 국제적 브랜드 마케팅'을, 주 남아공문화원은 '한-남아공 수교 30주년 기념 장애예술인 협력 공연'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싱가포르 문화홍보관은 싱가포르 최대 규모 축제에서 전통 한지를 전시해 K-컬처를 홍보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의 국정홍보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정세와 외교정책 방향을 교육한다. K-콘텐츠 전진기지로서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도 2회 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문화원이 K-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높여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

안도 논의했다.

3월 15일과 16일에는 K-컬처, K-콘텐츠, K-관광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22개 기관과 함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해 K-컬처, 콘텐츠, 관광 등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장호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K-컬처, K-콘텐츠, K-관광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K-컬처, K-콘텐츠, K-관광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가대표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Южная Корея взяла курс на создание аналога НАТО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удя по попадающим в прессу сообщениям,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США, устроив визит Юн Сок Ёлю с высочайшими почестями и используя фактор юбиле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альянса, будут добиваться от Сеула и более активной позиции по Украине. Южная Корея до сих пор хотя и выделяет гуманитарную 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омощь Украине, хотя продает оружие США и странам Европы, но отказывается напрямую поставлять вооружение и технику Киеву и не позволяет передавать свою во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Украине через третьи страны, не желая ухуд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Москвой.

Южнокорейцы находятся под сильным комплексным давлением со стороны НАТО, США, Украины и ряда стран Европы (Поль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 др.),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от Сеула занять "более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 сл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ША о грядущем начале новой эры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раз и означает изменение подхода Сеула по Украине в желательную для США сторону. Некоторые политологи прогнозируют, что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а" Джо Байдену Юн Сок Ёль может сделать заявление о начале прямых поставок во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Украин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мощник Владимира Зеленского Михаил Подоляк в интервью СМИ РК признал,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о военных поставках между Сеулом и Киевом идут, хотя пока корейцы все же не хотят полностью втягиваться в конфликт и начинать прямые поставки Украине продукции ВПК.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американцы уже анонсировали активизац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К, Японии и США по вопросам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от чего до сих пор Сеул отказывался, не желая провоцировать Пхеньян.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что грядут подвижки и по другим вопросам во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обще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в регионе грядут серьезны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сдвиги и возможно появление нового мощного военного блока во главе с США.

Тем не менее, пока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не все с радостью восприня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прорыв" в отношении с Токио. Дело в том, что "необходимый компромисс ради будущего" понравился далеко не вс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Сразу же после заявления о содержан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категорически против него выступили те, ради кого формально всё и делалось - те самые рабочие, которые трудились на япо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Они провели перед парламентом крупный митинг, где раскритиковали действия Юн Сок Ёля. Кроме того, оппозиция, где много сторонников преды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К, которая негативно была настроена к Японии, назвал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чередным примером пров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а", "предательством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и прочими нелестными эпитетами.

Многих обычных корейцев также не устраивает то, что на фоне разговоров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троения светлого будущего" по важным и очень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д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знания корейцев вопросам уступить пришло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рею, тогда как прежние оккупанты фактически снова отказались извиняться и не будут 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В этой связи Юну и его министрам предстоит еще очень непростая битва з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внутри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и. Тем не менее, Ю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н полон решимости доказать и убедить всех в своей правоте, хотя оппозиция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страдавших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явили, что не соглашались на это и никогда не пойдут на уступки японца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우리말로 깨닫다]

선비이시다

선비는 예전에,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던 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선비가 되고 싶단지, 선비로 살고 싶단지 하는 마음도 이런 정의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비는 배우는 사람이고, 욕심이 적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한민족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선비정신을 들기도 하는 것은 선비가 한민족의 태도와 지향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선비는 순우리말인데, 어원을 살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몽골족에 속한다고 하는 '선비(鮮卑)'라는 민족이 있어서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와 언어적으로 관련이 있는 몽골의 민족명어기에 관계가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명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비와 선비족이 관련성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선'입니다. (서정범, 새국어 어원사전) 선은 우리말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다른 어휘와 연관성이 보입니다. 우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말은 '산'입니다. 산은 중세국어에서 '丁'의 의미입니다. 장정(壯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과 선은 모음교체에 의한 어사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선비가 남성을 의미하는 것도 의미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음교체의 말을 하나 더 찾아보면 '손'도 있습니다. 손은 손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설명할 때 '손[手]'이 사람[人]의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보는데 손 그 자체를 사람의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손님이라는 말로만 주로 쓰이지만 예전에는 손만 따로 쓰이는 예도 많았습니다. '저 손아 마저 잠들어 홀로 울게 하여라.'라는 이은상 선생의 성불사의 밤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한편 산은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어휘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휘는 사나이입니다. 이 말은 '산 + 아히' 또는 '산 + 나히'로 분석합니다만 어떻게 나누더라도 산은 남습니다. 사나이와 사내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내는 뒤에 아이를 붙여 사내아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은 주로 남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 선, 손'은 사람을 나타내는 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의 폭을 넓혀보면 '사위'도 연관 지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나타내는 옛말에는 '사용'도 있었습니다. 시집의 '시'도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를 한자로 시(嫺)라고 쓰지만 남자라는 의미의 말이었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자말 중에는 그 기원이 북방민족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의 요소가 한자어로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비에서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시웃으로 시작하는 사람 관련 어휘로는 '스승, 사둔' 등도 있습니다. 사둔은 몽골어에서는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표적인 우리말 어휘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선비와 관련된 어휘를 주로 시웃으로 시작하는 어휘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스케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도 마찬가지로 연구도 스케치가 중요합니다. 스케치를 다른 말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그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연구가 정밀하지 않습니다. 더 철저히 살펴야 할 겁니다.

'선비'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선비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에서 멀고, 배움을 중요시 여기며,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답답해 보였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비는 누구인가요? '그분은 선비이시다!'라는 말은 멋진 칭찬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선비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емья победителей добыла почти 22 кг наваги, сообщил портал Оха65.ру.

Соревнования длились около двух часов. В основном у участников клевала навага. Несмотря на ухудшение погоды, рыбаки-любители сумели показать все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Жюри определяло победителей по максимальной массе 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ричем как в личном, так и в семейном зачете.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 21 кг 880 г показала семья Савочкиных.

러시아 우체국,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풍경이 담긴 엽서 발행

러시아 우체국과 러시아 지리학회회가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여 러시아 국민은 사할린과 쿠릴의 풍경이 담긴 엽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사진에는 사할린 지역의 5개의 비경이 들어 있는데 가장 큰 섬 이투루프, 온천, 하얀 절벽, 이투루프의 초원 풍경 그리고 명소인 아나와 등대이다.

"엽서에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비경이 담겨 있어 관광객들 누구나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런 환상적인 풍경이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관광부의 아르쭌 라자레브 장관이 소감을 전했다. 엽서에 담긴 풍경은 러시아 유명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작품들로서 엽서 1 장당 가격은 44루블이다.

Почта России выпустила открытки с пейзажам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чта России и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подготовили новый проект. Теперь россияне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открытки с видам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коллекцию входят пят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амый большой остров Итуруп, горячие источники, белые скалы, зеленые пейзажи Итурупа. Еще одним экземпляром стал маяк Анива.

- На открытках запечатлены красивые вид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локации, где может побывать каждый турист и убедиться, что эти сказочные пейзажи реальны,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ем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

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К слову, в карточках использовали фотографии известных российских фотографов. Стоимость одной открытки составит 44 рубля.

1천, 5천 루블리 신권 지폐, 여름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선보인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이 1,000루블리와 5,000루블리의 최신화된 신권 지폐를 발행한다. 전문가 그룹은 니체고로드스키 성채와 고스뱅크(국가은행), 막심 고르키의 기념비, 예카테린부르크의 파노라마 풍경 등 30개의 디자인들을 제시했다.

'타스' 통신이 새로운 디자인의 지폐가 2023년 여름에 발행된다고 전한 가운데 "최신화된 지폐는 개선된 디자인과 완벽한 복합적 보안 구성 및 내구성도 강하다. 개선된 신권 지폐는 위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유통되는 지폐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세르게이 벨로브 부행장의 발표를 인용했다.

신권 지폐는 올해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폐 내용 구성은 이미 확정됐다. 2024년에는 500루블리 신권 지폐가, 2025년에는 10루블리와 50 루블리의 신권 지폐가 발행된다.

Новые купюры номиналом 1000 и 5000 рублей представят россиянам летом

Центробанк РФ презентует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е банкноты в 1000 и 5000 рублей. Экспертные группы предлагали около 30 эскизов, в том числе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Нижегородского кремля, Госбанка, памятника Максиму Горькому и панорамным видом Екатеринбурга.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новый дизайн купюр представят летом 2023 года.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е банкноты будут иметь улучшенный дизайн,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ный защитный комплекс, высокую износоустойчивость. Модернизация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надёжную защиту от подделки и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банкнот в обращении", - цитирует издани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ЦБ РФ Сергея Белов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овые банкноты поступят в обращ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их концепцию уже утвердили. В 2024 году модернизируют купюры номиналом 500 рублей, в 2025 году - 10 и 50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게시는 이점생 님께 드리는 축하문

항상 든든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키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아버지, 손주들의 할아버지의 75회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마음을 써주시고 기동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지의 시간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곁에서 기쁨을 가득 안겨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이 세상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하지만 마음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담아 자녀와 손주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